

'아름다운 샘'은 가천길재단 이길여 회장의 호(號)인 '가천(嘉泉)'의 순우리말입니다.

05 유튜브 들여다보기

항암 치료 전후 건강한 성생활
전문의 3인 토크콘서트

07 포커스 I

백령도에서 닥터헬기로
임신 35주 산모 이송 작전

08 포커스 II

고난이도 뇌동맥류 수술 성공
영국인 환자 치료 사례

09 기획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센터 지정



경인지역 최초의 가천대 길병원 장기이식센터 개소 30주년 기념 심포지엄 개최

가천대 길병원 장기이식센터가 지난 30년을 기념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장기이식센터는 국내 다섯번째 신장이식 성공, 국내 최초 심장-폐 동시 이식 성공, 인천 최초 간이식 성공 등
장기이식의 역사에 큰 족적을 남겨왔습니다.



고난이도 뇌동맥류 수술 성공한 영국인 환자, “가천대 길병원 수준 높은 치료 매우 만족”

인천 송도에 거주하는 영국인 스캇 크레이그씨는
두통을 느껴 검진 중 7mm의 비교적
크기가 큰 뇌동맥류를 발견했습니다.
뇌동맥류 가족력이 있던 그는
수술을 결심해야만 했습니다.

관련 내용 08면





가천대 길병원 신임 진료부 보직자 임명장 수여식 개최

가천대 길병원은 7월 27일 응급센터 가천홀에서 신임 진료부 보직자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가천대 길병원은 7월 제16대 김우경 병원장 취임 이후 진료부 보직자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조용균 제1진료부원장, 박흥규 제2진료부원장, 박현미 제3진료부원장을 비롯해 가천대 길병원을 이끌어 갈 의료진들이 중책을 맡게 됐다.

김우경 병원장은 임명장 수여식에서 "새롭게 병원을 이끌어 가게 된 보직자들이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책임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가천대 길병원, 대학병원 최초 SDN 기반 유무선 네트워크 구축 완료

병원 내 다양한 네트워크의 통합 소프트웨어 관리로 업무 효율성 높이고 보안성은 강화

가천대 길병원은 국내 대학병원 최초로 차세대 스마트병원 시스템인 SDN(Software Define Network) 기반 유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을 도입, 최근 구축을 완료했다. 가천대 길병원도 도입한 SDN 기반의 고성능 유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은 병원 내에서 사용 중인 복잡하고 다양

한 네트워크의 자원을 통합 관리한다. 이번에 구축된 네트워크 인프라는 무선 네트워크 외에도 다양한 망 기반으로 통합 관리가 가능한데, 망 간에는 완벽하게 분리된 기술로 진료 기록 등 중요한 정보에 대한 보안성은 크게 강화됐다. 가천대 길병원은 국내 병원의 시스템 첨단화를 선도해오고 있다. 1984년

국내 병원 중 최초로 전산개발센터를 설립하고 1987년 자체 개발한 의사처치명령전산화 시스템을 도입했다. 또 1991년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도입, 2000년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을 도입했으며 SDN 도입으로 '스마트병원'으로서 병원 첨단화에 앞장서고 있다.

가천대 길병원 심혈관 원스톱 서비스 3000례 달성, 환자들 진단과 치료 비용 절감, 병원 체류 시간 단축 효과



가천대 길병원이 운영하는 심혈관 원스톱 서비스 '심혈관 낮병동'이 지난 6월 3000례를 달성,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심혈관 낮병동은 심혈관 질환 증

상자나 의심 환자가 낮 동안(6시간) 입원해 심혈관 조영술, 심초음파, 홀터, 혈액검사, 방사선 검사 등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비교적 간단한 검사나 시술이 필요한 환자가 입원을 위해 수일간 대기하거나, 이를 이상 입원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한 것이 특징이다.

가천대 길병원은 2020년에 2개월 동안 심혈관 낮병동을 시범 운영한 뒤, 2월 1일 정식 개소했다. 그리고 2년 여 만인 6월 21일 원스톱 서비스 3000례를 돌파한 것이다. 이용 사례를 분석한 결과 심혈관조영술(CAG)이 2,840건 시행, 그 중에서 1,197건은 검사 중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PCI) 시행이었고 160건은 폐고혈압, 부정맥 등 진단을 위한 심도자 검사였다.

심혈관 낮병동 이용자들의 만족도는 높았다. 2020년 12월 서비스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환자의 58%는 추가적인 검사와 시술이 필요하지 않았다. 이는 대다수의 환자가 병원 체류 시간과 추가적인 검사·입원에 따른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당일 서비스로 귀가할 수 있었음을 의미하는 결과다. 심장내과 정욱진 교수는 "심혈관 질환 의심 환자들에게 빠르고 정확한 검사와 시술을 제공하고, 검사와 시간은 최소화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획기적인 의료시스템"이라며 "모든 절차가 원스톱으로 이뤄지고, 단기 입원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도 적어 만족도가 높고, 전공의들의 업무 부담도 덜어져서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신경과 노영 교수 알츠하이머병 연구, 2022년도 보건의로 R&D 우수성과로 선정



신경과 노영 교수의 연구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선정하는 '2022년도 보건의로 R&D 우수성과로 선정됐다. 노 교수는 연구중심병원 육성 R&D 사업의 일환으로 '알츠하이머병의 진단을 위한 융복합 영상 바이오마커의 정량적 분석 소프트웨어 개발'을 주제로 연구를 진행해 왔다. 노 교수는 이 연구에서 알츠하이머병의 영상 진단 바이오마커를 의료 영상 분석 전문가 없이 빠르고 정확하게 정량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휴런에 기술이전하여 3가지 소프트웨어 'Veuron-Brain-pAb', 'Veuron-Brain-pT', 'A-finder'를 개발했다.

아밀로이드, 타우 PET의 결과를 정확하게 정량분석하기 위해서는 의료영상 분석 전문가가 리눅스 기반의 고성능 컴퓨터를 이용해 최소 8시간 이상을 분석해야만 하고, 분석 이후에도 수작업으로 보정하는 작업을 거쳐야 하는 점이 한계로 작용했다. 노 교수의 연구는 이러한 제약을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개발로, 인공지능(AI) 알고리즘 기반의 소프트웨어가 아밀로이드 PET과 타우 PET을 15분~2시간 내외의 시간으로 정확하게 정량분석해 낼 수 있다. 'Veuron-Brain-pAb', 'Veuron-Brain-pT'로 이름 붙여진 자동 정량화 분석 소프트웨어는 국내 최초로 개발된 PET 정량 분석 소프트웨어로, 'Veuron-Brain-pAb'는 미국 식약처 premarket notification, 유럽 CE인증을 획득했다.

노 교수는 "이 연구의 성과는 아밀로이드 PET, 타우 PET 및 MRI 융복합 영상을 이용한 '치매 진단 종합 솔루션'으로서 진단 뿐 아니라 환자의 현재 상태에 따른 정확한 위험 요소 층화 및 예후 예측에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가천대 길병원, 수혈 적정성 평가에서 100점 만점으로 1등급

가천대 길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6월 27일 발표한 제1차 수혈 적정성 평가에서 종합점수 100점 만점을 받아 최고 등급인 1등급을 획득했다. 수혈 적정성 평가는 수혈환자 안전관리 및 수혈 가이드라인 준수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성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0년 10월에서 2021년 3월까지 전국 병원급 이상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했다. 가천대 길병원은 수혈 체크리스트 보유 유무, 비예기항체선별검사 실시율, 수혈 전 혈액검사에 따른 수혈률, 수술 환자 수혈률 등 4개 평가지표에서 모두 만점을 받아 1등급을 획득했다. 상급종합병원 평균 96.5점이었다.

2022년도 전공의 워크숍 개최



가천대 길병원은 7월 16~17일 양일간 인천 네스트호텔에서 2022년도 전공의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가천대 길병원에서 수련 중인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 80여명과 김우경 병원장을 비롯해 진료부, 간호본부 주요 보직자 등 모두 100여 명이 참석했다. 김 병원장은 서울길병원 설립 계획과 진행현황을 참석자들에게 설명하고 전문가 특별강연도 청취했다. 강의 후에는 전문 사회자의 진행 하에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가천대 길병원-서송병원과 협력병원 체결식



가천대 길병원은 6월 28일 인천 계양구에 위치한 서송병원(병원장 김흥용)과 협력병원 체결식을 개최했다. 양 기관은 진료정보 교류사업을 통해 의뢰 환자의 편의를 높이고 연속성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가천대 길병원은 2022년 상반기 50여 병의원과 협력병원 체결을 마무리했고, 추가로 하반기 50여개의 협력병원 체결을 맺어 협력 병원을 총 1200여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간호사 교대제 시범사업 워크숍 신규간호사 역량 강화 교육



가천대 길병원은 6월 27일 본관 대강당에서 간호사 교대제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스타트업 워크숍을 개최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이 사업은 간호사의 다양한 근무형태 지원으로 예측가능하고 규칙적인 교대근무를 정착시키고, 체계적인 간호 교육 시스템 지원으로 신규간호사의 임상

역량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 가천대 길병원은 야간전담간호사, 지원간호사, 대체간호사를 배치하고 신규간호사 성장 지원으로 임상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 전담부서에 현장간호사를 배치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현장간호사들을 격려하고 배지 수여식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교육 운영 사례 발표, 향후 운영 계획과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 등을 진행했다.

㈜애경산업 랩신, 가천대 길병원에 손소독제 2400개 전달



가천대 길병원은 7월 22일 ㈜애경산업 랩신으로부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손소독제 2400개를 전달 받았다. ㈜애경산업 김남수 사업부장, 임금희 차장은 이날 김우경 병원장, 조용균 제1진료부원장, 이금숙 간호본부장을 만나 자사의 위생 전문 브랜드인 랩신 새니타이저 겔 500ml 제품 2400개(190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 애경산업의 위생전문 브랜드인 랩신은 '더 나은 병원 생활을 위한 클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손소독제를 기부했다.

수상을 축하합니다

정형외과 백종민 교수

제32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 수상
골다공증 환자의 척추 건강 주제 논문



외상외과 윤용철 교수

제9차 한태평양외상학회우수연구상
경골 개방성 골절 치료에서의 단계적 수술 주제



외상외과 정대석 교수

제9차 한태평양외상학회 우수연구상
딥러닝 이용 두개골 골절 자동화 진단 주제



혈관외과 고대식(좌)·강진모(우) 교수팀

대한혈관외과학회
춘계학술대회 최우수연구상
투석을 위한 동정맥루
협착 치료 주제



미디어 들여다보기

미디어 핫클립



이시훈 교수 /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내과 (가톨릭으로 인해) 코로나율이 분비되면 식욕을 억제하는 각종 호르몬 합성이러는지 각종 호르몬의 작용을 방해해서

▶ **내분비대사내과 이시훈 교수**
SBS 「모닝와이드」(7/4)
커피가 콜레스테롤을 상승 원인?

엄중식 교수 /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감염내과

▶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
KBS 「생로병사의 비밀」(7/13)
코로나, 삶과 죽음을 가르는 순간

비뇨의학과 김광택 교수

▶ **비뇨의학과 김광택 교수**
YTN 「슬기로운 라디오생활」(7/22)
전립선암 진단과 치료

가슴 답답한데... 체한 게 아니라 '이' 질환?

▶ **심장내과 한승환** 교수
조선일보 [가슴 답답함](6/9)
가슴 답답하다면 조기 진단 필요

박홍규 교수 /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외과

▶ **외과(유방클리닉) 박홍규 교수**
SBS 「모닝와이드」(5/31)
유방암을 이겨내는 방법

심재양 교수 /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정형외과

▶ **정형외과 심재양 교수**
KBS 「생로병사의 비밀」(7/6)
왜 아플까? 신체 각도에 답이 있다

정준원 교수 /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소화기내과

▶ **소화기내과 정준원 교수**
KBS 「뉴스」(7/18)
식중독, 폭염 속 건강관리 비상

원숭이두창과 같은 듯 다른 '감염성 피부병' 3가지

▶ **피부와 김희주** 교수
경향신문 [감염성 피부병](6/2)
대상포진 초기 진단 중요

몸이 좋다면 가렵고 자주 붓나요? 뽕-간-혈당 밸런스를 미리 살펴주세요

▶ **신장내과 김애진** 교수
중앙일보 [사소하지만 신경 쓰이는 불편함](6/20)
가려움과 붓기, 내과 질환 가능성

박기형 교수 /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신경과

▶ **신경과 박기형 교수**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6/20)
치매일까, 건망증일까

박운선 교수 /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감염내과

▶ **감염내과 박운선 교수**
SBS 「모닝와이드」(7/12)
코로나 재유행과 적신호

강승걸 교수 /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 **정신건강의학과 강승걸 교수**
TBN 경인교통방송 「경인매거진」(7/21)
일산화탄소 중독 자살 예방

[in-터뷰] "환자 삶의 질 위해선 전립선 뒤쪽 로봇수술이 정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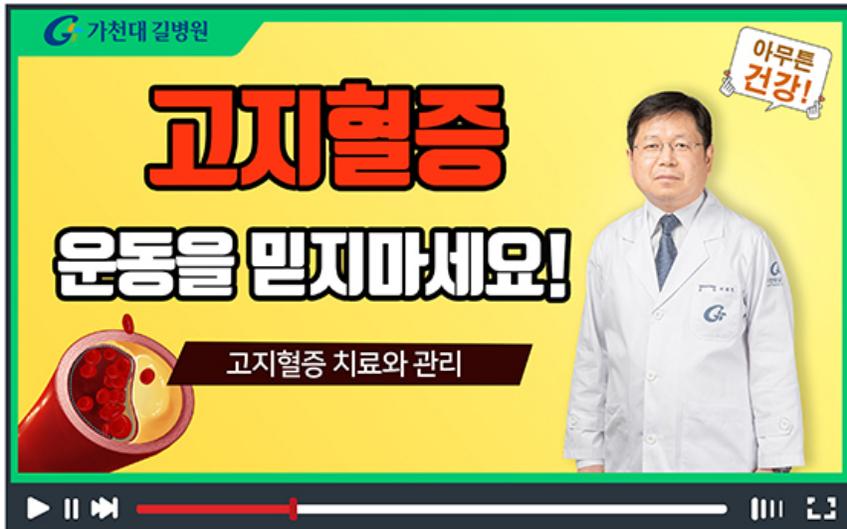
▶ **비뇨의학과 김태범** 교수
라포르시안 [전립선암 로봇 수술](6/7)
전립선 뒤쪽으로 접근하는 수술 시행

몸에 좋다는 들기름-참기름, 구울 때 쓰면 되려 '혈관 장애'로 돌변해요

▶ **가정의학과 고기동** 교수
중앙일보 [건강한 오일과 해로운 오일](6/27)
건강한 오일의 유익함



유튜브 [길병원TV] 핫클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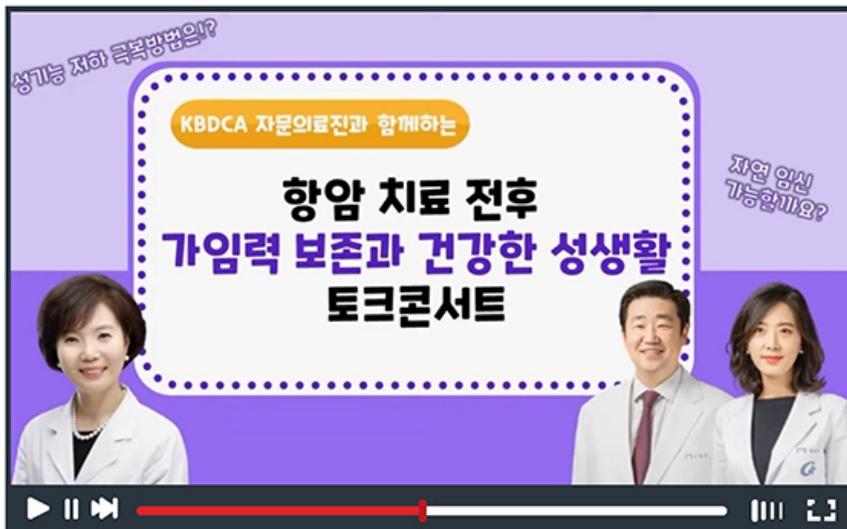


증상으로 알기 어려운 고지혈증, 운동을 믿지 마세요!

혈중에 지(방)질 성분이 증가한 상태인 고지혈증은 혈관벽에 쌓여 죽상경화증을 일으키는 등 많은 합병증을 유발합니다. 그러나 아주 심한 경우가 아니라면 증상이 없어 정확한 진단이 없이 알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고지혈증의 치료를 위해서는 식생활 뿐 아니라 적절한 약물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약물치료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민간요법이나 운동, 생활습관 개선만으로 치료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노력만으로는 치료가 어렵습니다. 내분비대사내과 이대호 교수가 고지혈증의 원인과 치료, 관리에 대해 설명합니다.

😊 내분비대사내과 이대호 교수

- ▶ 진료분야: 당뇨병, 부신, 희귀난치성 내분비질환, 이상지질혈증, 비만
- ▶ 약력: 대한당뇨병학회 학술이사, 가천의생명융합연구부원장



전문의 3인이 말한다! 항암 환자를 위한 건강한 성생활과 가임력 보존

항암 치료를 받았거나, 치료를 앞둔 환자들이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하는 고민 중 하나가 성기능 저하와 가임력 보존의 문제입니다. 더 행복한 삶을 위해 힘든 항암 치료를 마치고도 항암제의 영향으로 성기능이나 가임력을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항암 치료 전·후의 궁금 해소를 위해 혈액암학회 자문의료진인 혈액내과 박진희 교수와 비뇨의학과 오진규 교수, 산부인과 전승주 교수가 뭉쳤습니다. 항암치료 후 불임의 원인, 자궁경부암 치료 후 시험관 시술, 성생활로 인한 암재발이나 이차암 가능성 등 여러 가지 궁금증에 대해 3인의 전문가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립니다.

😊 혈액내과 박진희 교수, 비뇨의학과 오진규 교수, 산부인과 전승주 교수

더 많은 의학정보를 알고 싶다면? YouTube 길병원TV 를 검색하세요!

가천대 길병원, 경인지역 최초의 장기이식센터 개소 30주년 기념 심포지엄 성료

장기이식센터 성과 발표 및 분야별 권위자 초청 발표
30년간 경인지역 장기이식 수술 발전에 큰 성과



가천대 길병원은 6월 25일 인천 힐리데이인송도호텔에서 장기이식센터 개소 30주년을 기념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가천대 길병원 공식 유튜브 채널인 '길병원TV'를 통해 온라인 중계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가천대 길병원 장기이식센터의 30년 성과를 발표하고 신장, 간, 심장 등 이식 분야의 권위자들을 초청해 장기이식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공유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가천대 길병원 장기이식센터는 1991년 경인지역 최초로 개소했으며, 2002년 뇌사자를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뇌사판정 대상자 관리 전문기관(HOPO)으로 지정됐다. 박연호 가천대 길병원 장기이식센터장(외과)은 개회사에서 "가천대 길병원 장기이식센터는 1991년 신장이식을 시작으로 여러 이식 분야에서 수술에 성공하여 국내 장기 이식의 이정표를 세우는데 기여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4개 세션 주제 발표와 2개의 특별 강연이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은 '뇌사자 발굴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주제로 △뇌사자 장기 기증에서의 생명잇기 역할(이삼열 생명잇기 이사장) △장기 기증 현황 및 기증 활성화를 위한 활동(최지우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코디네이터) △뇌사자 관리에서 HOPO의 역할과 가천대 길병원의 뇌사 장기 기증자 관리 현황(이순미 가천대 길병원 장기이식센터 실장)이 발표됐다. 이후 각 세션에서는 △탈감작을 통한 ABO 불일치와 HLA 부적합 신장 이식 사례(가천대 길병원 신장내과 노한 교수) △신장 이식에서 에플렛(eplet) 불일치의 임상적 효용성(정종철 분당서울대병원 신장내과 교수) △가천대 길병원의 간이식 경험(최상태 가천대 길병원 혈관외과 교수) △DLT donor MIS 현재 및 가천대 길병원 LT현황(유진수 삼성서울병원 이식외과 교수) △심장이식과 좌심실 보조장치(이석인 가천대 길병원 흉부외과 교수) △폐 이식 현황과 미래(백호채 연대세브란스 흉부외과 교수)



를 주제로 발표가 이어졌다. 네 번째 세션 중에는 심장이식 수술을 포함한 심장 수술 발전에 큰 업적을 남긴 명의인 가천대 길병원 흉부외과 박국양 교수가 심폐 이식의 역사를 주제로 강연했다. 또 특별 강연자로 가천대 길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김병준 교수가 참여해 가천대 길병원의 췌도이식 준비 상황과 이종 이식을 주제로 강연했다. 가천대 길병원은 1991년 개소 후, 국내 다섯 번째 신장이식 성공, 1995년 심장 및 각막 이식 성공, 1997년 국내 최초 심장-폐 동시 이식 성공, 인천 최초 간이식 성공, 2013년 혈액형 불일치 신장이식 성공, 조직형 불일치 이식수술 성공 등 의료 성과를 쌓아오고 있다. 개소 이후 6월 현재까지 신장이식 475건, 간이식 196건, 심장이식 45건을 시행하고 239명의 장기기증 뇌사자를 관리했다. 2014년에는 장기기증 및 이식 활성화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장기이식센터 30주년 기념 수기 공모전 시상식 결과는? 신장이식 이선미씨 최우수상 등 3명 시상



장기이식센터는 7월 11일 오후 장기이식센터 30주년 기념 수기 공모전 시상식을 뇌과학연구원 회의

실에서 개최했다. 장기이식센터는 센터 개소 30주년을 맞아, 이식 대기자들의 심리적·신체적 어려움을 공감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주기 위한 수기 공모전을 5월 23일부터 6월 17일까지 시행했다. 장기이식을 받은 수혜자 또는 기증자의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장기이식 수술 전·후의 경험담,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환우들을 위한 희망편지, 기증자에게 드리는 감사편지 등을 공모를 통해 접수 받았다. 공모 결과 최우수 사연인 1등은 신장이식 수술을 받은 이선미씨의 사연이 채택됐다. 이씨는 건강을 자신하던 그

가 만성신부전증으로 투석을 받고, 신장을 이식받기까지의 사연과 더불어 이식을 기다리는 환우들을 위한 조언, 기증자에 대한 감사를 적어냈다. 2등과 3등은 각각 심장이식 수술을 받은 김태형씨와 간이식 수술을 받은 곽인화씨의 사연이 뽑혔다. 박연호 가천대 길병원 장기이식센터장은 "공모에 참여해 주신 모든 참여자들에게 감사드리며, 오랜 기다림 끝에 이식에 성공해 건강한 새 삶을 살고 있는 환자들의 사연을 통해 이식대기자들이 삶에 대한 희망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산부인과 김석영 교수(왼쪽에서 두 번째)와 우씨 부부(가운데)



△ 응급의료 전용헬기 닥터헬기

“닥터헬기와 의료진 덕분에 건강하게 출산했습니다” 뱃길로 4시간 서해안 최북단 섬 백령도 출산 임박 산모 닥터헬기 이송 작전

백령도는 인천에서 뱃길로 220km, 여객선으로 4시간이 넘게 걸리는 서해 최북단의 섬입니다. 뛰어난 자연환경이 매력적인 섬이지만, 의료 등 인프라는 부족합니다. 인천의료원백령병원이 주민들의 건강을 돌보고 있지만, 예기치 못한 사고나 응급 상황이 닥쳤을 때는 환자를 신속하게 육지로 이송해야 합니다.

임신35주 역아 임신 산모, 갑자기 양수 파열 제왕절개 수술 위해 육지로 이송해야 하는 상황

백령도 주민인 임신부 우연경씨는 지난 7월 6일 오전, 평소와 같이 출근을 준비하던 중 갑자기 양수가 터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인천의료원백령병원 응급실 간호사인 그였지만 갑작스러운 상황 앞에서는 당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임신 35주로, 평소 건강 이상을 예상할만한 징후도 없었습니다.

곧바로 백령병원으로 간 우씨와 남편 박성호씨, 바로 분만을 시도해야 하지만 태아가 거꾸로 자리잡은 역아였기에 제왕절개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수술이 가능한 육지 병원으로 서둘러 이송해야 하지만, 여객선이 뜨려면 4시간이나 남은데다, 여객선을 타고도 4~5시간을 더 기다려야 큰 병원에 도착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기상상황도 좋지 않아 발을 구를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백령병원, 가천대 길병원에 닥터헬기 요청 산부인과 김석영 교수 등 수술 준비

그 때 백령병원 응급실 공보의가 ‘닥터헬기’를 떠올렸습니다. 9시13분 백령병원으로부터 출동 요청을 받은 가천대 길병원 닥터헬기는 곧바로 백령도행 준

비를 마쳤습니다. 응급의학과 추승화 교수와 김나경 간호사가 탑승, 11시쯤 백령도에 도착했습니다. 닥터헬기가 백령도로 떠난 사이, 산부인과 김석영 교수 등 의료진들도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궁수축이 시작된 산모가 병원 도착 후 곧바로 수술을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백령병원-닥터헬기 이송 의료진-산부인과 의료진’이 긴밀히 소통하며 현지에서 할 수 있는 검사와 조치들을 먼저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12시30분쯤 드디어 산모가 가천대 길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우씨는 지체없이 분만실로 들어가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8kg의 건강한 아기 ‘지우’가 울음소리를 터뜨리자, 그제야 의료진들은 긴장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우씨 부부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의료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

우씨 부부는 7월 11일 아기 지우양과 함께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했습니다. 우씨는 “갑자기 양수가 터져서 눈 앞이 캄캄했는데 백령병원 선생님들, 닥터헬기 의료진들, 산부인과 모든 의료진들의 도움을 받아 이렇게 건강하게 아기와 퇴원할 수 있게 돼 어떻게 감사인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며 “딸 지우에게 나중에 이렇게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네가 건강하게 태어났다고 꼭 알려주고 싶다”고 감사인사를 전했습니다.

가천대 길병원은 2011년 국내 최초로 닥터헬기를 운항 개시했으며, 2018년 인천지역 고위험산모·신생아통합치료센터를 개소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난이도 뇌동맥류 수술한 영국인 스캇 크레이그씨 “가천대 길병원 의료서비스 대만족”

가족력, 위치, 크기 등 수술 필요
신경외과 김명진 교수 믿고 타국 땅에서 수술

뇌출혈을 일으키는 원인 가운데 뇌동맥류가 있다. 뇌동맥의 혈관이 약해져 혈관 일부가 풍선이 부풀 듯이 부풀어 있는 상태다. 모든 뇌동맥류가 뇌출혈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지만, 터지기 전에 발견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뇌동맥류가 왜 생기는데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선천적인 이상, 가족력, 흡연, 고혈압 등이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가족들 중 뇌동맥류, 뇌출혈 환자가 있다면 건강검진을 소홀히 해선 안된다.

낯선 타국 땅에서 뇌동맥류를 진단 받은 환자가 있다. 영국인 스캇 크레이그(45·Scott Robert Craig)씨는 인천 송도경제자유구역청에 위치한 UN 산하 기구에서 일하고 있다. 한국에 파견된지는 1년, 두통이 있어 가천대 길병원 신경과를 방문, 원인을 찾기 위해 실시한 MRI 진단 검사에서 크기 7mm의 뇌동맥류를 발견했다.

뇌동맥류 치료를 위해 그는 신경외과 김명진 교수를 만나 치료 계획을 상의했다. 그의 부모는 두분 모두 뇌동맥류 가족력이 있었다. 그렇지만 평소 금

연하고 운동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뇌동맥류가 있을 것으로는 생각하지 못했다.

신경외과 김명진 교수는 “모든 뇌동맥류를 수술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스캇씨의 경우 부모의 가족력과 뇌동맥류의 크기, 위치 등을 고려했을 때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뇌동맥류 수술 자체가 난이도가 높고 쉽지 않은 수술이지만 스캇씨의 경우 더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았다. 뇌동맥류의 위치가 머리 안쪽 가운데인 전교통동맥인데다, 동맥류의 모양이 잘록하지 않은, 목이 4.9mm로 넓은 형태였다.

뇌동맥류 수술은 크게 두개골을 절개해 부푼 혈관으로 가는 길목을 클립으로 묶어 혈류를 차단하는 결찰술과, 두개골을 절개하지 않고 스텐트를 이용해 부푼 혈관 내부를 코일로 채워넣는 코일색전술이 있다. 스캇씨의 경우 코일색전술을 시도한다해도, 목이 넓은 동맥류의 모양상 코일이 빠져나오지 않도록 혈관에 스텐트를 삽입해야 할 수 있고, 이 경우 아스피린과 같은 항혈전제를 1년 이상 복용해야 한다. 까다로운 수술을 앞두고 스캇씨는 치료

를 위해 영국으로 돌아가야 할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김명진 교수와 진료를 돕고 있는 국제의료센터 박일한 코디네이터에 대한 신뢰와, 주변 동료들의 추천으로 수술을 결심할 수 있었다. 스캇씨는 6월 14일 수술을 위해 입원, 이튿날 코일색전술을 받았다. 목이 넓은 동맥류임에도 김 교수는 스텐트를 추가해 지지하지 않고 부푼 혈관 내에 코일을 정확히 위치시켰다. 수술은 대성공이었다. 스캇씨는 6월 17일 퇴원,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가 UN 기구 직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

김 교수는 “언어적인 부분을 비롯해 여러 까다로운 조건이었지만 아들을 위해 영국에서 방문하신 부모님과 환자가 의료진에 보내주신 믿음에 보답하게 돼 뿌듯하다”라고 말했다.

스캇씨는 “김명진 교수님 뿐 아니라 간호사님들, 국제의료센터 직원 등 의료진 모두가 정말 전문가로서, 환자로 하여금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셨다”며 “치료를 위해 애쓰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 의료진과 영국인 스캇 크레이그씨



△ 신경외과 김명진 교수

'국산 의료기기의 경쟁력을 높여라'

가천대 길병원, 국내 최초 광역형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지원센터 지정



글로벌 기업들의 신제품 홍보의 장에 국산의료기기 홍보·판매 센터로 도전장

가천대 길병원이 인천광역시와 함께 '광역형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 지원센터'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번 공모사업은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공모 사업으로, 인천과 성남 등 전국 2곳이 선정됐다.

국산의료기기교육·훈련지원센터는 의료기기의 실제 사용자인 의료진, 해외 유학생 등 수요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기의 사용 경험을 제공해 구매 활성화로 연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동안 대부분의 의료기기 관련 연구 및 과제는 R&D와 임상시험 등 제품의 개발과 임상적 검증에 집중됐었다. 그러나 판매의 마지막 단계인 제품에 대한 사용 경험과 교육, 전시 및 홍보는 소홀한 점이 있었다. 광역형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 지원센터는 국내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산의료기기 교육, 훈련, 전시가 가능한 전용 인프라를 구축한다.

가천의료기기융합센터, 5년 전부터 국산의료기기 맞춤 컨설팅

그동안 국내에서는 충북 오송에 있는 글로벌 의료기기 기업 두 곳이 각각 메드트로닉 이노베이션센터와 인천 송도에 올림푸스 트레이닝센터가 대규모로 운영하면서 자사 제품에 대한 사용 경험을 제공하고 신제품에 대한 홍보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비해 아직까지 국산의료기기를 위한 대규모 교육, 훈련 인프라가 없었다. 따라서 국산의료기기를 직접 사용해보고, 경험해 볼 수 있는 광역형센터가 인천과 성남에 지정됨으로서 국산의료기기 회사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가천대 길병원 의료기기융합센터 김선태 센터장(이비인후과)은 "가천대 길병원에서 쌓은 5년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광역형 교육, 훈련 지원센터가 국산의료기기를 위해 더 없는 교육, 훈련, 홍보의 장이 돼 국산의료기기의 글로벌 판매에 크게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가천대 길병원 의료기기센터는 2017년 복지부 지정 최소침습 의료기기 중개임상시험센터에 지정되면서 국내 최초로 모의수술실과 성능평가실, 교육 훈련실을 갖춘 국산의료기기를 위한 트레이닝센터를 개소해 운영했다.

5년간 총 60여건의 트레이닝을 진행해 왔으며 참여한 의료진 수는 총 656명이었다. 글로벌 의료기기 트레이닝으로서 파푸아뉴기니, 러시아, 몽골, 중국,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해외 의료진 및 바이어 대상으로 의료연수 프로그램 진행해왔다.

특히 트레이닝과 동시에 국산 의료기기에 대한 성능평가와 사용적합성 테스트를 같이 시행해 호응을 받았다.



김선태 센터장은 "의료진들에게 국산 의료기기를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고 해외 의료진에게도 트레이닝 기회를 제공해왔다"며 "이 같은 가천대 길병원의 꾸준한 노력과 성과가 쌓이면서 국내에서도 광역형 교육, 훈련 지원센터의 필요성이 점차 대두됐고 이번에 과제가 탄생되는 기본 자료를 제공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인천광역시 컨소시엄에는 인천테크노파크, 가천대 길병원, 노터스, 인천시의사회, 인천시치과의사회, 한국의기기산업협회 등이 참여했다.

△ 국산의료기기를 테스트 중인 의료진들

가천대, 과기부 2022 이공분야 기본연구사업 37개 과제 선정 사립대 7위, 우수교수 영입으로 연구역량 입증

가천대, 과기부 2022 이공분야 기본연구사업 37개 과제 선정 사립대 7위, 우수교수 영입으로 연구역량 입증

가천대학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한국연구재단이 공모한 2022 상반기 이공분야 기초연구사업 기본연구부문에서 37개 과제가 선정돼 과제 수 기준 사립대 7위(전체 공동 10위)를 기록했다. 총연구비는 54억5천여만원이다. 가천대는 이로써 2020년 25개과제, 작년 40개과제를 포함해 100여개 연구과제(총 연구비 135억원 규모)가 진행중이다.

이공학분야 개인기초연구를 폭넓게 지원해 연구기반을 확대하고 국가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대학 이공분야 전임교원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기본연구사업에서 다수 과제가 선정된 것은 가천대 이공학 분야 우수 신진 연구자가 크게 늘어 그만큼 대학의 연구역량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본연구사업은 연구주제를 자유롭게 제안하고 평가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자유공모로 진행됐다. 과제별 연구기간은 1~3년으로 수학, 물리학,



△ 가천대학교 전경

공학, ICT·융합 등 10개 분야로 나눠 공모한다. 선정된 연구과제도 블록체인 기반 다중 결제 채널 기술연구(컴퓨터공학과 김우성 교수), 자가 열 관리 기능을 갖는 건물적용 튜브형 태양광열 모듈에 관한 연구(설비·소방공학과 공민석 교수), 우울증 치료를 위한 머신러닝 기반 ACT 어플리케이션 개

발 및 치료 기전 규명(의학과 나경세교수) 등 다양하다. 가천대 이길여 총장은 “연구에 대한 열정과 실력을 가진 우수한 교수진이 늘어나 연구역량이 높아지고 있다”며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기초연구 강화를 위해 대학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가천대학교, 정부 부처협업형 인재양성사업 4개 분야 선정 미래형자동차, 이차전지,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핵심인재 양성

가천대학교가 신산업 분야 혁신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공모한 2022~2024 부처협업형 인재양성사업에 4개 세부과제를 응모해 모두 선정됐다.

가천대는 미래형자동차 기술융합 혁신인재양성사업, 이차전지산업 기술인력 양성사업, 반도체 전공 트랙 사업, 차세대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인재 양성사업과제에 선정됐다. 사업기간은 오는 7월부터 2025년 2월까지로 총 62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지

원 받아 미래형자동차, 이차전지,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특성화를 통한 핵심인재양성에 나선다. 이 사업은 국가적으로 전문인재양성이 요구되는 첨단 신기술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시행된다.

미래형자동차분야는 미래자동차학과와 AI·소프트웨어학부 등 4개학과가 협력해 스마트카 융합전공 등을 특화해 자율주행 안전제어 핵심기술 인력을 배출하고, 이차전지분야는 화공생명공학과 기계공학 융합전공과 배터리공학전공 운영을 통해 전문인

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또 시스템반도체분야는 차세대반도체전공 내에 시스템반도체전공트랙을 추가로 신설, 반도체 설계인력을 양성하고 바이오헬스분야는 전국유일의 바이오헬스특화 메이커스페이스 전문랩 등 최상의 교육 인프라를 바탕으로 기계공학과와 의공학과, 전자공학과 융합전공 운영 등을 통해 바이오헬스의로기기분야 융합인재를 양성한다. 가천대 이길여 총장은 “산업 패러다임 변화를 예측해 신산업을 이끌 첨단분야 학과를 미리 신설하고 현장 미래형 교육 등을 통해 교육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성과”라며 “분야별 신기술을 이끌 최적화된 인재를 키워내겠다”고 말했다.

가천대, 하와이 어학연수 파견 단기과정 3차례 58명, 장기과정 40명



△ 가천대학교, 하와이 어학연수 총 98명 파견

가천대학교가 여름방학에 맞춰 미국 하와이에서 어학연수와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하와이 가천 글로벌센터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3주과정의 단기어학연수(Hawaii Gachon Elite Course)는 6월 27일부터 3회로 나눠 총 58명이 참여하며 장기 어학연수생(Hawaii Gachon Premium Course)은 15주 동안 40명이 참여한다. 가천대는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학금을 대학에서 지원하고 있다. 파견에 앞서 6월 21일 대학 글로벌센터 국제홀에서 파견학생들에게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하와이가천글로벌센터는 유명 관광지 와이키키

해변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지난 2012년 개관했다. 센터는 지상 3층 규모로 최대 60여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방 32개와 라운지, 야외수영장, PC LAB 등의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연간 300여 명의 학생이 3주에서 최장 15주까지 머물며 영어공부와 현지 문화체험을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800여명의 학생들이 어학연수를 다녀왔다. 가천대는 이와함께 학생들의 국제 감각을 키워주기 위해 단기해외파견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가천대는 이번 여름방학을 활용해 영국, 미국, 스페인 등 5개국 8개 대학으로 총 58명을 파견한다.

고객의 소리

고객이 칭찬한 당신을 칭찬합니다

고객분들이 주시는 소중한 우리병원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감동과 친절을 선물한 우리병원 의료진 및 직원들의 수많은 감동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고객의 소리는 홈페이지, 전화, 직접방문 등을 통해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다양한 이야기들은 우리 모두에게 감동과 친절로 되 돌아옵니다.



종양내과 박주환 교수

여덟 번에 걸친 항암 치료를 모두 마쳤습니다.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기쁘다고만은 할 수 없지만, 그동안 함께 해주신 고마운 분들이 떠오릅니다. 박주환 교수님을 비롯해 감히 천사라고 부를 수 있는 간호사님들, 모두 무한한 감사를 보냅니다. 커다란 병 속 흰 액체들이 두려웠지만 친절하고 부드럽게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는 천사님들 덕분에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김OO님



신경과 박기형 교수

얼마 전 갑자기 기억을 잃고 길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박기형 교수님과 구본국 선생님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회진 오실 때마다 이것저것 자세히, 여러번 여쭙았는데 웃으면서 항상 밝게 대답해 주셔서 빠르게 회복하고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주말에 퇴원하느라 인사를 못드리게 돼 이렇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늘 지금까지 존경받는 의사 선생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최OO님



외과(유방암센터) 전용순 교수

2020년 2월에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황스럽고, 불안하고 초조했는데 전용순 교수님께서 친절한 미소와 화끈한 성격으로 놀란 가슴을 가라앉혀 주셨고, 걱정하지 말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2년 6개월이 지난 지금, 진료실에서 교수님을 뵈고 나오면 근심 걱정들이 사라지면서 행복이 시작되는 기분이 듭니다. 든든한 멘토, 전 교수님 언제나 건강하세요.

김OO님



치과 배정운 교수

치과 치료에 대한 두려움으로 제 때 치료를 받지 못해 치아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진료 받는 것조차도 무섭고 떨리는 마음으로 겨우 보철과에 가게 됐는데, 밝은 표정으로 안내하는 정민영 선생님, 치료 내내 열심히 설명하면서 안심시켜 주시는 배정운 교수님, 마무리를 잘 해주신 이지선 선생님 덕분에 웃으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길병원 치과센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최OO님



비뇨의학과 정한 교수

암진단을 받고 길병원에 오기 전까지 하루 하루 두려움과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처음 정한 교수님을 만나 진료를 받던 날, 자신감 있게 저를 안심시켜주시고, 자상하고 세심하게 챙겨주시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수술도 잘 되었고, 회진하시면서도 희망의 메시지를 주셔서 정말 안심했습니다. 편안하게 안심시켜 준 박예림 간호사님도 감사합니다. 재활 잘 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뵈겠습니다. 김OO님

고객의 칭찬

진료부 | 교육수련부 서명한 비뇨의학과 김광택, 정한 산부인과 김석영, 신귀택(전공의) 신경과 구본국(전공의), 박기형 외과 전용순 정형외과 박흥기, 임동섭(전공의) 종양내과 박주환 치과 배정운, 양대승(전공의), 조진용 혈액내과 김형선, 신은정, 유쾌한

간호본부 | A108W A108병동, 이현혜, 조예문, 한미희 A148W 조성수(이송팀) A158W 김진훈, 박소현, 서옥경, 안숙(NA) A168W A168병동, 고문정 A78W 김재은, 민영현, 윤솔빈, 황유정, 황은화 A88W A88병동, 강복순(NA), 장현주, 허소영 A98W A98병동, 안희성, 조용설 C10BW 박은미 C6AW 김정훈(이송팀) C7AW 신혜진 C9BW 정효진 I106W I106병동, 박예림, 이윤아 I116W I116병동, 송민지, 장은빈 I126W 박경오(NA) I136W 김현정, 박세희 I166W 김은지 I96W 이에진 MDR 분만실, 김가은, 이소은, 정가희 R10W 김세진, 백재준, 홍민우(이송팀) R7W 광윤경(NA), 박인규, 배순일 R9W 유혜림 마취과 이소리, 이유경 비뇨의학과외래 강수연, 최상기 소화기내시경실 소화기내시경실 신장내과외래 박성희 심초음파실 김경순 응급실 응급실, 강은철 정신건강의학과외래 주은미 호흡기내과외래 김은희 인공신장실 김형찬, 박은희, 이은주, 조미진, 홍슬기

진료지원부 | 물리치료팀 양영모 치과외래 구현선, 안수빈, 이지선, 이휘경, 정민영

행정부 | 재난방재팀 김미정(NA), 정문숙(NA)

가천대 길병원 의료진의 생생 건강 정보 다양한 채널을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구글 '인증' 건강 유튜브 채널
길병원TV 바로가기



네이버 검색창에 '가천대 길병원'
포스트 '건강에 길이 있다' 바로가기



가천대 길병원은 유튜브, 포스트, 블로그, 페이스북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환자 등
고객 여러분께 올바른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확하지만 간단하고, 쉽지만 핵심적인 의학정보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건강으로 가는 바른 길, 가천대 길병원이 동행하겠습니다.

기부는 사랑입니다

A씨는 젊어서 회사 생활을 하면서 풍요롭지는 않지만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이 배우자, 자녀들과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작스레 법적 분쟁에 휘말
리게 되면서 근로가 중단되었고 저축액을 모두 소진하며 부채 또한 발생하였
습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을 감당하지 못했고 결국 신용불량자가 되었지
만 정년퇴직할 나이가 넘어 일할 수 있는 곳도 마땅치 않았습다. 고령의 나이
로 근로할 수 있는 곳은 공공근로 밖에 없는 상황으로 소액이지만 일하여 생계
를 꾸리는 것에 만족하며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70대가 넘어가면서 이
제는 공공근로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생계가 끊기게 되어 경제적 어려움
이 극심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주민센터에서 수급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도움
을 주었고 3개월 간의 기다림 끝에 생활비 보조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
내도 척추협착으로 근로할 수 없게 되어 국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다행이라고
여겼으나 첫 수급비를 받기도 전, 생각지도 않게 왼쪽 목이 붓기 시작했고 통증
까지 느껴졌습니다. 진찰 결과 귀밑샘에 양성 종양이 있고 시간이 지나면 암으
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덜컥 겁이 나
수술하기로 하였으나 갑작스런 수술로 준비한 돈도 없어 더욱 막막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병원사회사업팀 상담을 통해 환자의 치료와 관련하여 지원 가능
한 부분을 함께 찾아보았습니다. 후원자님들이 조성해주신 기금을 연계하여
수술을 받았고 종양을 제거하여 무사히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과 도움의 손길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작은 실천이 큰 사랑으로 돌아옵니다.
후원계좌번호 100-014-147300(신한은행, 예금주: 길의료재단)
※기부금영수증 발급 필요 시 사회사업팀(032-460-3531)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병원 이용이 더욱 빠르고 편리해집니다!

가천대 길병원 모바일 앱



휴대전화 카메라로
QR코드를 스캔해보세요.
앱 설치 페이지로 안내해드립니다.

가천대 길병원



의료진찾기
원하는 의료진을
한눈에 확인 가능



내 일정
자신의 일정을
한눈에 확인 가능



진료예약
내 진료예약을
한 번에 조회 가능



진료비 결제
수납대기 없이
앱으로 바로 결제



실손보험청구
서류없는 초간편
보험청구 가능



처방약 조회
처방받은 약에 대한
정보 조회 가능



건강수첩
개인의 건강 상태를
직접 기록 가능



내 번호표
번호표를
미리 발급 가능



전자처방전 전달
처방받은 약을
손쉽게 수령 가능

